

2024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심의평

2024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역량, 추진 능력, 사업목표의 부합성과 타당성, 작품의 예술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예술적 기여도를 심의 선정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서류심의에서는 예술가 및 예술 단체가 기술한 사항 중 기획 방향이 구체적인가, 기획방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와 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였고, 면접심의에서는 서류에서 제시한 사업의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사업이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예술의 성장 등의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우선 순위에 두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부분의 예술가(단체)들이 참여예술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제안해 주었으며, 예술인들이 제기한 기획의도와 문제의식에 따른 여러 시도들은 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하였습니다. 공연예술분야는 재연작 등과 함께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들이 제시되었으며, 공연을 통해 예술적 표현을 관객과 공유하고 문화적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문학 분야는 작품 집필과 출간, 낭독회, 워크숍을 통한 발표방식이 있었으며, 문학 작품을 통해 소통과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공감을 형성하려는 다양한 기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각분야는 전시, 워크숍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중요한 제안들도 있었으며, 작품을 통해 보편적인 예술생태환경을 개선해보려는 의지도 드러났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지역의 다양한 정량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편차와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사업포기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배려하지 않고 몇 개의 안타까웠던 사업은 예비로 선정하였습니다.

연속적인 지원을 받은 단체는 기획서의 완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기존 레파토리나 분야의 전문성을 담은 기획이 많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변화와 노력이 아쉬웠습니다. 신규 참여 단체는 참신한 기획이 많았으나 예산의 편성,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해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컸습니다. 매년 동일한 아쉬움은 사업의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한 점이며, 특히 사업의 주 대상에 따른 변별력 있는 모객 방법이나 방식을 고민이 미흡한 점입니다.

사업 선정 수보다 예산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선정된 사업이 제안한 내용의 축소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을 통해 예술가와 예술단체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발휘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로 지역에 긍정적 효과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2023.2.23.

심의위원	조영신	(서울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박미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
	노지영	(문학평론가)
	이미화	(이모저모도모소 대표)
	임덕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